

2025. 9. 9.(화)	보도자료 https://www.brise.re.kr	담당부서	대외협력팀
 부산라이즈혁신원		부 서 장	박종민 팀장 (051-795-5151)
		담당자	김예진 연구원 (051-795-5153)

부산라이즈혁신원, 'B·RISE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식' 성황리 개최

- ◆ 부산지역 21개 대학 104명 서포터즈 선발, 8개월간 부산형 RISE 성과 확산 주역으로
- ◆ 동명대 · 신라대 · 부산보건대 홍보활동 전략 경진대회서 수상 영예
- ◆ 부산라이즈혁신원, 고객현장 선포로 RISE체계 성공적 운영에 대한 의지 다져

- 부산라이즈혁신원(원장 이준현)은 지난 9월 5일(금) 부산라이즈혁신원 내 특별행사장에서 「B·RISE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식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. 이번 출범식에는 서포터즈 69명을 포함해 대학 RISE 사업단 관계자, 부산시 및 유관기관 인사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다.
- B·RISE 대학생 서포터즈는 부산형 RISE 체계의 성과를 대학과 청년이 협력해 확산해 나가기 위해 출범했다. 부산지역 21개 대학에서 총 104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으며, 이들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한다. 서포터즈는 △부산형 RISE 홍보 콘텐츠 제작 △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△청년 소통 창구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혁신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.
- 본격적인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서포터즈의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, 이어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는 대학별 서포터즈가 한 팀을 이루어 홍보 활동 전략 경진대회를 펼쳤다. 서포터즈들의 자체 투표 결과, △동명대학교 팀이 1등, △신라대학교 팀이 2등, △부산보건대학교 팀이 3등을 차지했다. 이들 3개 팀은 본행사 무대에서 전략을 직접 발표할 기회를 부여받아 대학생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선보였다.

- 본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△이준현 부산라이즈혁신원장의 환영사 △김귀옥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.
- 이준현 원장은 “부산형 RISE는 지역과 대학, 청년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 체계”라며, “B·RISE 대학생 서포터즈가 그 변화의 중심에서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것”이라고 격려했다.
- 또한, 출범식에서는 부산라이즈혁신원의 고객현장 선포식이 진행돼 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다졌다. 이어 국내·외 대학생 대표와 명예기자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되며 서포터즈의 공식 활동 개시를 알렸다.
- 앞으로 B·RISE 대학생 서포터즈는 부산형 RISE 홍보 캠페인, 대학별 공동 프로젝트, 온라인·SNS 콘텐츠 제작, 기관 주요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. 특히, 청년 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부산형 RISE의 성과와 비전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게 된다.

※ 별첨. 행사사진



